

문항 3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B형 [언어]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계, 예체능계 / 문항 B-1 [언어]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상처, 과실, 반성, 치유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1] **가**의 ㉠과 **나**의 ㉡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고, **나**의 ㉢을 참고하여 **다**의 ‘권 씨’의 행동을 평가하시오. (700 ± 50자)

가

차심이라는 말 있지
 찻잔을 닦지 않아 물이끼가 끼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 했지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들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뜨거운 찻물이 금 속을 파고들어 가
 그릇 색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 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준다고……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난다는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아픈 금 속으로 찻물을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손택수, <차심>, 『고등학교 문학』

나

비자반(櫃子盤)* 일등급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용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닌데, 반면(盤面)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이다. [중략]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측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희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겅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일 년, 이태, 때로는 삼 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 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한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 내면 도리어 한 급이 올라 ‘특급품’ 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過失)’ 과 결부해서 생각해 본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 그 가능성을 매양 꿈무늬에다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비자반: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

과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할 까닭은 없다. 과실은 예찬(禮讚)하거나 장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나는 절대로 과실을 범치 않는다.’ 라고 양언(揚言)할 것이냐? 공인된 어느 인격, 어떤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다. [중략]

ⓐ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요,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올 마이너스’ 일 까닭도 없다.
과실로 해서 더 커 가고 깊어 가는 인격이 있다.
과실로 해서 더 정화(淨化)되고 굳세어지는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 과실, 제 상처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 — 그 탄력만이 ‘과실’을 효용한다.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김소운, <특급품>, 『고등학교 문학』

다

앞부분 줄거리: ‘나’의 집 문간방에 세 들어 사는 ‘권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빈궁한 살림에서도 자신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아낀다. 어느 날 임신한 아내의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던 ‘권 씨’는 집주인인 내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을 당한다. 우연히도 그날 밤 나의 집에는 강도가 드는데, 나는 그 강도가 ‘권 씨’임을 알게 된다.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디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중략]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꺾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영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후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중략]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 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윤홍길, <아홉 쉼의 구두로 남은 사내>, 『고등학교 국어』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일견 결점, 위기, 상처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극복, 승화, 치유를 해 냈을 때 오히려 그 대상의 존재 가치와 효용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우리 삶의 보편적 진실을 이해하고, 이것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작중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제시문[가]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나]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19	117	제시문 가	×
문학	류수열 외	(주)금성출판사	2019	32-33	제시문 나	×
국어	박안수 외	비상교육	2018	86-96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손택수의 시로, 찻잔의 결점처럼 보이는 ‘잔금’, 즉 차심의 효용을 밝히는 글이다.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룰 때 생기는 찻잔의 잔금은 불가마 속의 고통을 상징한다. 하지만 뜨거운 찻물이 금속을 파고 들어가 차심이 되고 나면 병균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주는 작용을 하며,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날 정도로 그 가치를 선명히 드러낸다.

제시문 **나**는 김소운의 수필로, 비자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의 반면이 갈라졌다가 다시 유착하여 생긴 ‘흉터’가 특급품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글이다. 갈라진 바둑판은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회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균열을 잘 회복하면 오히려 특급품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지어, 누구나 과실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과실을 딛고 일어난 사람은 훨씬 더 크고 깊은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제시문 **다**는 윤홍길의 소설로, 자신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생계와 가족은 책임지지 못하는 ‘권 씨’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권 씨’와 그 가족은 ‘나’의 집 문간방에 세를 들어 살면서 빈궁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임신한 아내의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던 ‘권 씨’는 집주인인 내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을 당하고, 그날 밤 ‘나’의 집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온다. 그러나 ‘권 씨’는 나에게 정체를 들키고 행방불명된다. 자신이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망을 친 것이다. 이는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잘못을 뉘우쳐 더 나은 인격을 갖추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가)에서 ‘잔금’ 이 결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차심이 되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읽어내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② 제시문 (나)에서 ‘휴터’ 또한 결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특금품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읽어내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③ 제시문 (다)에서 ‘권 씨’ 가 저지른 강도짓이 잘못된 행동이며 그 이후의 행방불명이 무책임한 행동임을 읽어내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④ 자신의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통해 더 크고 깊은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제시문 (나)의 교훈과 서술 태도로 볼 때, 제시문 (다)의 ‘권 씨’ 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설명하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논리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②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③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